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

김억조*

|| 차례 ||

- I. 들머리
- II. 이론적 배경
- III. ‘죽음’에 대한 인식과 완곡어의 해석
- IV. 마무리

【 】

이 연구는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언중들은 금기나 금기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회피를 위해 완곡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금기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언중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금기어는 어떤 면을 감추기 위해 은폐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며 이를 대신하는 완곡어는 어떤 면을 부각할 것이다. 또한 금기어를 대신하는 완곡어를 사용하는 전략은 ‘은유’와 ‘환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죽음’ 관련 금기어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금기어, 완곡어의 개념과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의 은유, 환유 및 틀과 해석에 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 관련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간의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금기어, 완곡어, 은유, 환유, 틀, 해석, 죽음

*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들머리

이 연구는 ‘죽음’을 나타내는 금기어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언어는 문화의 반영이라는 말에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문화가 들어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쓰는 언어를 살펴보면 좋은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나쁘거나 꺼리는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어¹⁾로 표현한다. 즉, 금기나 금기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완곡어를 사용한다. 금기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언중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금기어는 어떤 면을 감추기 위해 은폐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며 이를 대신하는 완곡어는 어떤 면을 드러내기 위해 부각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또한 금기어를 대신하여 완곡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면 ‘은유’와 ‘환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죽음’ 관련 금기어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의 금기어와 완곡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어휘론적 관점의 연구, 담화 화용적인 연구,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휘론적 관점의 연구로는 심재기(1970), 남기심(1982), 김선풍(1994), 김종수(2000), 허재영(2001), 박영준(2004)을 들 수 있다.²⁾ 둘째, 완곡어를 포함한 담화 화용적인 연구로는 문금현(1999), 김미형(2000), 김

1) 완곡어란 ‘나쁘거나 좋지 않은 느낌을 꺼리고 회피하여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어휘’를 지칭한다(김홍석 2008:20-21).

2) 심재기(1970)-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남기심(1982)-금기어와 언어의 변화, 김선풍(1994)-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김종수(2000)-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허재영(2001)-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요인, 박영준(2004)-한국어 금기어 연구-유형과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홍석(2008)을 들 수 있다.³⁾ 셋째, 인지언어학적인 연구로는 채춘옥(2014, 2016)을 들 수 있다.

앞의 세 관점 중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의 연구를 살펴보면 채춘옥(2014)에서는 완곡 표현을 원형 이론, 개념적 은유 이론, 개념적 혼성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나 금기어나 완곡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채춘옥(2016)에서는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에 관해 원형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논문에서 기본층위보다 상층위는 더욱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며, 하층위는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더 높고 복잡한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죽음’은 기본층위이고 ‘별세하다’는 상층위, ‘눈을 감다, 손가락을 놓다, 심장이 멈추다’는 하층위라고 하였다. 하지만 금기어에 대한 완곡어 표현이므로 동일한 사물이나 상황을 지칭하는 것을 두고 기본층위, 상위층위, 하위층위로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세상을 떠다, 천당에 가다, 눈을 감다, 밥손가락을 놓다’는 ‘죽음’에 대한 원형적 보기가 아니라 비원형적 보기가 되어서 언어기호와 사물 간의 거리를 멀리하여 완곡한 표현이고 ‘천당에 가다, 하늘나라로 가다, 황천에 가다, 지옥에 가다, 저승에 가다, 골로 가다, 이승을 떠나다, 세상을 등지다, 세상을 하직하다, 세상을 버리다’ 등은 금기어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거나 크고,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에 있어서 인지적 노력이 더 복잡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완곡어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룬 논의가 있었지만 이들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보일 수 있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3) 문금현(1999)에서는 완곡어의 ‘완곡성’을 논의하였는데 부차적 의미 특성으로서 완곡성을 가지고 있는 국어 완곡 표현들을 제시하였다. 김미형(2000)에서는 완곡 표현을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나누어 그 특성과 화용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완곡 표현의 언어 심리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김홍석(2008)에서는 어휘 범주의 완곡어 중 총 73개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았다.

있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장에서 금기어, 완곡어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으로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의 은유, 환유 및 틀과 해석의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3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죽음’ 관련 금기어를 대신하는 완곡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⁴⁾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금기어와 완곡어 그리고 인지언어학의 주요 논제인 은유와 환유, 틀과 해석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금기어와 완곡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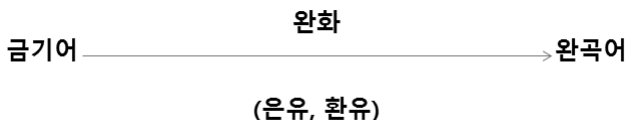
먼저 ‘금기어’와 ‘완곡어’에 관한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a. 금기어(禁忌語)는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말을 뜻하고 이 금기어를 예들러 우회적으로 하는 말을 완곡어(婉曲語)라고 한다(심재기 2011:272).
- b. 금기란 ‘마음에 꺼리거나 피함’을 뜻하며, 어떤 행위를 금지 또는 특정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이와 같은 의도로 형성된 말을 금기어라고 한다.(허재영 2001:194)
- (2) a. 주로 기본이 되는 어휘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연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그 같은 연상을 삭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군의 어휘소들을 완곡어라고 한다.(김광해 1993:160)

4) 이 논문에서 사용된 용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현대한국어 용례 검색기’(<http://riksdb.korea.ac.kr/>)를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 b. 어휘의 한 종류로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꺼려서 쓰기를 피하는 어휘로서 기휘어(忌諱語)가 있다고 하면서, 종류를 나누고 예로부터 쓰여진 기휘어의 예를 들고 이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는 완곡어(유창돈 1971:153)
- c. 어느 문화권이나 금기어가 있게 마련인데, 특히 죽음·질병·성에 관해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누그러뜨린다. 결과적으로 직접표현과 완곡표현 사이에 동의관계가 성립되며, 완곡어법이 공용어의 자격을 얻는 수도 있다 (임지룡 1992:140)

(1)은 ‘금기어’에 관해 논의하면서 내린 정의이고 (2)는 ‘완곡어’에 관해 논의한 곳에서 나온 정의이다. 금기(禁忌)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표현하지 않거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금기어는 두려운 존재나 죽음, 질병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꺼려서 생기기도 하고 부끄러운 경우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다. 이처럼 꺼리거나 피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기어 대신 완곡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은유나 환유의 방법인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금기어와 완곡어의 관계

2. 은유와 환유

인지언어학에서 은유와 환유는 독립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서로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은유와 환유의 개념적 본질은 Lakoff & Johnson(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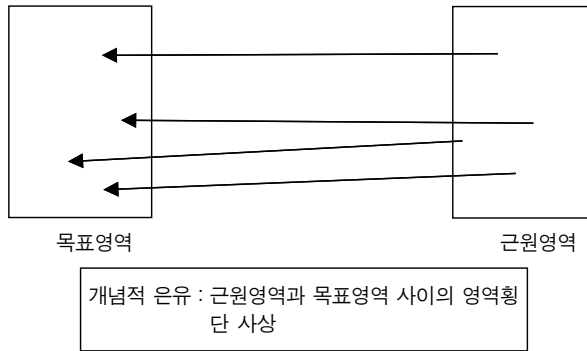
Lakoff(1987), Lakoff & Turner(1989)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인지언어학자들은 이들의 논의를 토대로 자신들만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지언어학적 견해에 따르면 은유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영역(목표영역(target domain))을 다른 구체적인 개념 영역(근원영역(source domain))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고 부르는데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⁵⁾

은유에서 ‘근원영역(source domain)’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이어서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영역(target domain)’은 우리에게 낯설고 추상적이어서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임지룡 2014: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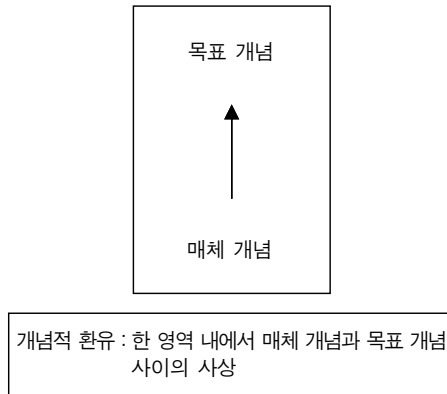
개념적 은유의 작용 원리를 살펴보면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데 구조화된 근원영역의 개념적 요소들이 체계적인 대응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이다. 이 대응관계를 ‘사상(mapping)’이라고 하는데, <그림 2>에서 보듯이 이는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으로의 개념적 전이를 뜻한다(Evans & Green 2006: 294~295 참조).

5)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감정, 경험, 사건 등을 현실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로 이해하는 은유이다. 지향적 은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인간이 보다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 개념인 위-아래, 앞-뒤, 안-밖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은유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개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부여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치는 전쟁]과 같은 은유에서 우리 편 여당을 아군으로 상대 야당을 적군으로 개념화하고 두 정당의 대립을 아군과 적군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



〈그림 2〉 은유적 사상

환유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체계 내에서 인접성(contiguity)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Kövecses(2002: 264)에서도 ‘환유는 같은 개념적 공간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요소나 개체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때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의미가 바로 인접성이다. 이 인접성은 화자가 물리적·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는 한 성립될 수 있다(임지룡 2014: 83-84). 전통적 관점은 ‘환유’가 언어의 문제이며, 한 실체를 다른 실체로 대치하는 것이며, 그 실체는 현실 세계에 있는 인접성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환유’는 개념적 현상이며, 인지적 과정이며, 이상적 인지모형 안에서 작용한다고 본다(Radden & Kövecses 1999 : 17~21 참조).



〈그림 3〉 환유적 사상

은유와 환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환유는 ‘X는 Y를 대표한다’라는 개념적 관계인 데 반해, 은유는 ‘X는 Y에 의해 이해된다’라는 개념적 관계에서 차이가 나고 영역의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은유는 두 개념적 영역 간의 관계로 기술되는데, 한 개념적 영역은 다른 개념적 영역에 비추어 이해된다. 따라서 은유의 경우에는 영역 간 사상 또는 영역 외적 사상이 수반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환유는 한 개념적 영역만 포함하며, 이 개념적 영역 내에서 사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유의 경우에는 영역 내 사상 또는 영역 내적 사상이 수반된다.

3. 틀과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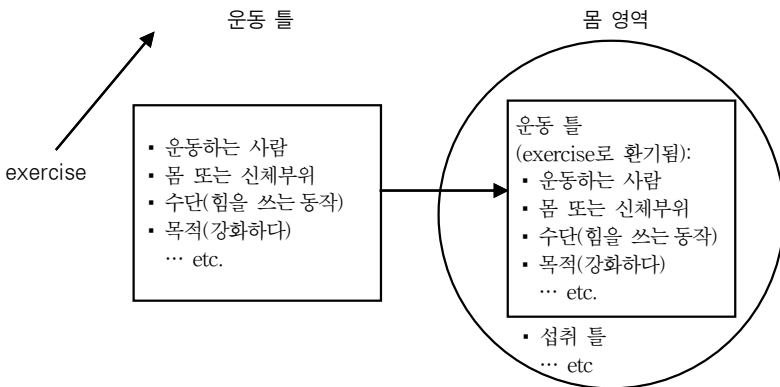
한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포함한 체계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개념 체계, 또는 배경 지식이 ‘틀(frame)’이다. 틀⁶⁾은 해석의 장치로서, 이에 따라 단어의

6) Sullivan, K. (2013:26 Figure 2.2)에 의하면 어떤 표현이 틀을 환기시키는데, 그 틀은

위상이 결정된다(임지룡 2017:15). 그리고 ‘해석(construal)’은 세계(즉, 사물, 사건)의 양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한 실체나 상황이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개념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낱말의 의미는 틀에 의존하며 틀 내에서 개념화된다.

틀의 개념은 Schank & Abelson(1977)이 스크립트(script)라는 용어로 논의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 물론 틀에 관한 문헌은 틀 요소들의 역할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예컨대, 틀로 논의되든 스크립트로 논의되든 상관없이 상거래(Commercial Transaction)의 표준 도식에는 동일한 역할이 들어 있다. 즉, 판매자, 구매자, 상품, 가격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틀의 개념은 또한 상거래의 어느 양상을 언급해도 상거래 틀이 환기된다고 부가적으로 강조한다(임지룡·김동환 옮김 2015:32).

여러 가지일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틀이 해당 개념의 영역을 형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영역이 큰 개념이고 틀은 그 속에 포함되는 더 작은 개념인 것이다. 즉, 한 영역에는 여러 틀이 존재하는데 윤곽부여되지 않은 영역 내의 틀은 생략된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몸 영역’에는 섭취 틀, 질병 틀 등도 있지만 운동 틀만 윤곽부여된다.



Ⅲ. ‘죽음’에 대한 인식과 완곡어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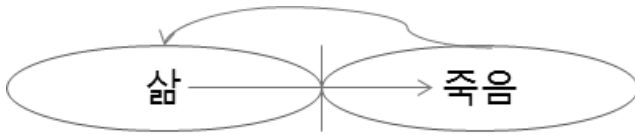
1. 죽음에 대한 인식

대표적인 금기 영역인 ‘죽음’을 표현하는 완곡어를 통해서 금기를 어떻게 회피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죽음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죽음은 노년기에 발생한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간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대다수 문화권에서 보이는, 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윤가현 2016:131).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직접 말하기를 꺼려서 이를 대신하여 완곡어를 사용한다. 먼저 말뭉치에 나타난 ‘삶-죽음’ 공기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a. 썩은 나무나 짐승의 시체는 <중략> 낭비가 없이 삶과 죽음이 순환 된다.
 b. 모든 삶의 종착지가 죽음일 뿐인, 그밖에는 어떠한 다른 결론도 없는
 c. 삶과 죽음의 경계 지점을 ‘영원으로의 여행’이라는 즐거운 잔치로 만드는
 d.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 진율을 느꼈다.
 e. 삶의 행진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다.

(3)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3a)를 통해서 ‘순환’되는 것으로, (3b)에서는 ‘삶’에서 ‘죽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3c)와 (3d)에서는 경계나 분기점이 있는 것으로, (3e)를 통해서 ‘삶의 행진’이 끝나고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죽

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삶’과 ‘죽음’의 인식

〈그림 4〉처럼 ‘삶’과 ‘죽음’을 연속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태어나서 죽는 것이 순환되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어 인식한다.

- (4) a. 이승으로부터 저승으로 떠나려 하고 있다.
- b.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것으로
- c.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는 것처럼 한 생명이 이세상에 태어나는 일도 있었다.
- d. 외롭게 시위를 했던 영화 선장 박성규 씨는 결국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4)에서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승’ 혹은 ‘이세상’으로 표현하고, 죽음의 세계를 ‘저승’ 혹은 ‘저세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에서처럼 ‘죽음’에 관해서는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완곡적으로 표현한다.

2. 은유와 환유를 통한 완곡어 사용

금기어를 사용하기를 꺼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완곡어를 사용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은유와 환유를 통해서 완곡어를 사용한다. 먼저 은유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a. 그 소녀는 나에게 정표인양 병균을 나누어 주고 이승을 뒀는가 하자
 b. 남편은 일찍 세상을 버렸고 아들 한 명이 있었다고 했다.
 c. 그의 어머니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마르세유에서 세상을 떠났다.
 d. 김 교수는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야 남편의 ‘이웃 사랑’을 알게 됐다고 했다.

(5)의 예를 통해 은유 [죽음은 목적지로의 이동이다]를 확인할 수 있다. ‘죽음’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금 사는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표현하는데 목적지가 있는 이동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생활사는 ‘세상에 도착하는 것(arriving in)에서 시작해서 인생을 경험하고(going through life) 죽을 시기에 떠나는 것(leaving or departing)’으로서 관습적으로 개념화된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세 가지 여행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 첫 번째 여행에 도착하는 것이고, 전체 인생은 세계에서 두 번째 여행이며, 죽을 때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은유 [출생은 도착이다], [죽음은 출발이다]는 출생과 죽음은 사건의 특정한 실례이며, 도착과 출발은 행동의 특정한 실례이다(임지룡·김동환 옮김 2010:173). 이처럼 어떤 은유는 일반성의 상위층위에서 작동한다. 예컨대, 은유 [사건은 행동이다]를 보자.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모두 총칭적(또는 상위층위) 개념이다. 이런 은유는 특정층위 은유의 일반화로 간주되며, 역으로 특정층위 은유는 상위층위 은유의 실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죽음은 출발이다]가 상위

층위 은유 [사건은 행동이다]의 실례라고 말할 수 있다(임지룡·김동환 옮김 2010:219). 이처럼 죽음은 사건이며, 출발의 근원영역은 행동이다.

(6) 물위에 그 이름을 써 남긴 자 여기에 잠들다.

(6)의 예는 전통적인 은유 설명에 사용되는 ‘유사성’에 의한 은유로 볼 수 있다. (6)에서 잠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 ‘죽음’의 모습과 유사한 것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환유적인 표현을 살펴본다. 환유에서는 구체적인 매체가 추상적인 목표를 대표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틀은 구체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소는 다시 전체 영역을 대표할 수 있다.

- (7)⁷⁾ a. We need some good heads on the project(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좋은 두뇌가 필요하다).
b. We need a good left hand on the team(우리 팀에 좋은 왼손잡이가 필요하다).
c. I saw some new faces in class today(나는 오늘 학급에서 새로운 인물을 봤다).

(7)은 환유 [신체 부위는 사람을 대표한다]이다. 이것은 [부분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환유에 대한 더 특정한 버전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개념적 환유를 사용한다.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람의 부분을 사용하는데 언제나 동일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적인 능력에 관여할 때는 ‘머리’로, 물리적 양상에 관심이 있을 때는 ‘손’이나 ‘얼굴’을 사용한다. 이처럼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 환유를 사용할 때도 특정한 신체

7) 임지룡·김동환(2010:191). 밑줄은 필자가 표기함.

부위가 사용된다. 이것은 ‘죽음’을 표현할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

- (8) a. 알코올 중독이던 그는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다가 심장이 멈췄다.
 b. 1000만 감동시킨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교수, 웃으며 눈 감다.

(8)에서는 죽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8a)에서는 ‘심장’이 멈추는 것으로, (8b)에서는 ‘눈’을 감는 것으로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심장이 사람을 대표해서 ‘심장이 멈췄다’라고 하거나, 눈이 사람을 대표해서 ‘눈을 감다’라고 함으로써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인과성] 틀을 통해 원인과 결과 관계를 통해 ‘죽음’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 (9) a. 카인은 아벨의 숨이 멈추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반군의 아지트로 옮겨와 수술을 받게 한다.
 b. 숨골은 숨을 쉬게 하는 신경을 정기적으로 자극하여 인간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한다.

(9)에서는 ‘숨이 멈추다’와 ‘호흡이 멈추다’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숨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추다’라고 함으로써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는 환유에 의한 표현이다. 이처럼 우리의 세상사 지식은 구조화된 틀, 즉 이상적 인지모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틀이나 이상적 인지모형은 부분을 가진 전체이다(임지룡·김동환 2010:175). 틀은 부분을 가진 전체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환유 생산 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형상이 나타난다.

- (10) She's in the hospital(그녀는 병원에 있다)

(10)에서 누군가가 있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체 복합적 사건을 암시한다. 누군가가 병원에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그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잠재적인 의미는 그가 병원에 있는 누군가를 방문 중이라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의 경우 모두 ‘전체의 부분은 전체 사물을 대표한다’라는 동일한 환유가 사용된다 (복합적 사건 ICM-임지룡·김동환 2010: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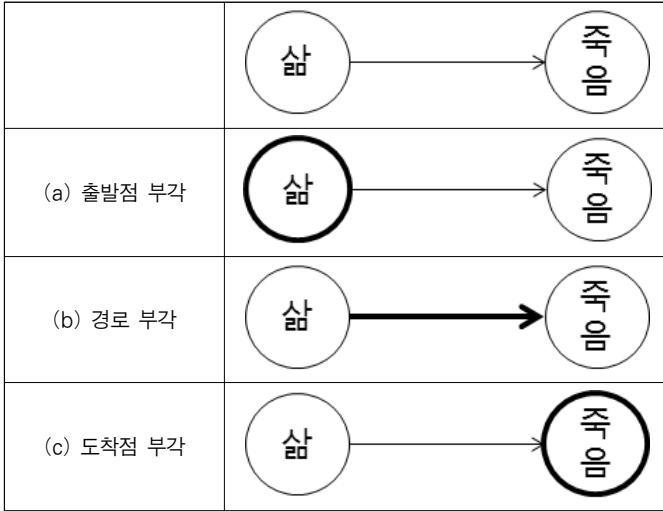
3. 완곡어에 대한 해석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석(construal)은 세계(즉, 사물, 사건)의 양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Interpretation)이나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 실체나 상황이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개념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지룡·김동환 옮김 2010: 367).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음’을 ‘목적지가 있는 이동’으로 파악하는데 ‘출발점-경로-도착점’을 부각하는 은유로 보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

- (11) a. 홀쩍 세상을 등진 오빠의 영전에서 ‘못난 엄마를 용서하라’며 흐느끼는 어머니를 / 남편은 일찍 세상을 버렸고 아들 한 명이 있었다고 했다. / 그 소녀는 나에게 정표인양 병균을 나누어 주고 이승을 뺐는 간 하자
- b. 바다를 건넜다
- c. 할머니가 어처구니없게도 검은 개를 따라 저승으로 가버렸다니. / 곧 저승에 거주지를 옮겨가야.

(11)은 모두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11a)는 출발점을 부각하는 것이고 (11b)는 경로를 부각시키는 것이며, (11c)는 도착점을 부각하는 것이

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죽음' 표현에서 부각되는 부분

<그림 5>에서처럼 '삶'의 세계를 부각시켜 표현하느냐, '경로'를 부각시켜 표현하느냐, 아니면 '죽음'의 세계를 부각시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금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죽음에 관한 완곡어 중에는 사람 생전의 신분이나 믿는 종교 그리고 죽음의 원인, 죽은 후의 각종 상황에 따라 다소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 (12) a. 나는 내 운명을 주재하는 신의 부름을 도저히 거역할 수 없다.
 b. 영혼이나마 정말로 고향에 가 계시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걷혀지지 않았을까.
 c. 그녀는 천당에 갈 수도 있을 테지.

- d. 광덕은 이미 당신과 그렇게 살고도 극락에 갔거늘 낸들 안 될 게 뭐 있겠소?”

(12)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부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다. (12a)처럼 표현하는 것은 아마 ‘신’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주재하는 신의 부름에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죽음’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12b)도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자신이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들어 있다고 할 것이다. (12c)의 ‘천당’은 기독교에서 인식하는 ‘천국⁸⁾’으로, (12d)의 ‘극락’은 불교에서 ‘하늘 궁전⁹⁾’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는 그렇지 못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3) a. 가난의 설움을 풀 짬도 없이 66세로 세상을 등졌다.
b. 고집덩어리던 할아버지도 기어코 세상을 저버리고 말았다.
c. 영웅담에는 으레 나오는 얘기니까 지옥에 갔다 살아나온다

(13) 역시 죽음을 표현하는 완곡어이다. ‘세상을 등졌다’, ‘세상을 저버렸다’, ‘지옥에 갔다’는 ‘죽음’에 관해서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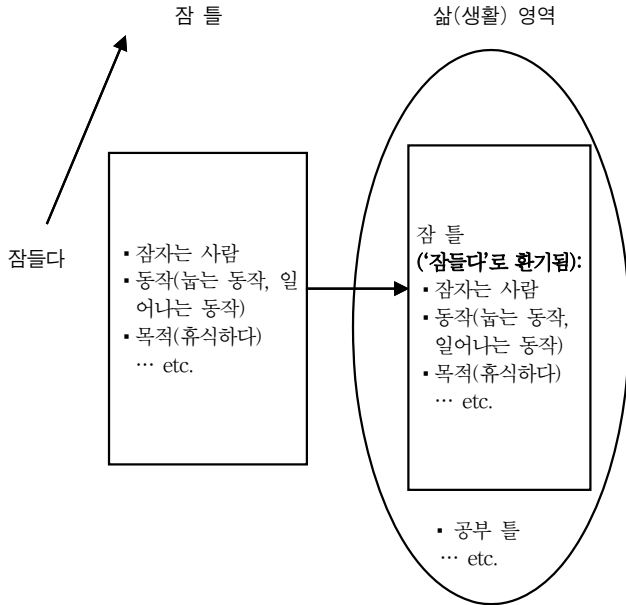
- (14) a. 여정이 피곤했는지 30분쯤 지나면서 대부분 잠들었다.
b. ‘한국동요의 아버지’ 童心속에 잠들다.

예문 (14)에 나타난 ‘잠들다’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8)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혼이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본다.

9) 하늘에 있는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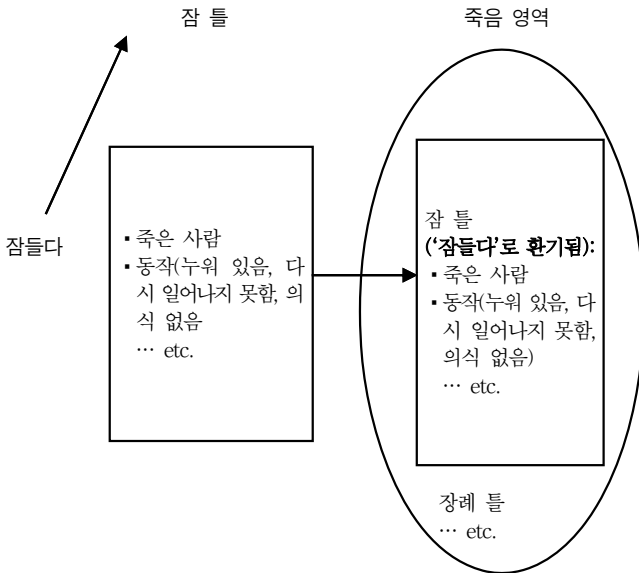
<그림 6>과 같은 ‘삶(생활)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예문 (14ab)의 ‘잠을 자다’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삶(생활) 영역에서 ‘잠들다’의 해석

<그림 6>에서 ‘잠들다’는 ‘잠자는 사람, 눅는 동작, 다음날 일어나는 동작, 잠을 통한 휴식’ 등의 ‘잠 틀’을 환기시킨다. 이 ‘잠 틀’은 우리 삶(생활) 영역의 한 부분에 속하는 틀이다. 이 틀에 의해 해석하면 (14a)는 피곤한 여정을 소화한 사람이 누운 지 30분쯤 지나 빨리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또한 (14b) 역시 ‘한국동요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 사람이 童心 속에 젖어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틀’을 다르게 적용하면 (14)의 두 예문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즉, (14a)는 ‘잠’의 틀에서만 해석된다. 여기서

는 밤에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삶(생활)’의 영역에서만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14b)는 앞서서처럼 눕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음날 다시 깨어나는 ‘잠’ 틀이 아니라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죽음 영역’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림 7〉 죽음 영역에서 ‘잠들다’의 해석

〈그림 7〉은 ‘죽음’ 영역에서 해석되는 ‘잠 틀’이다. 죽음의 영역에서 ‘잠 틀’은 죽은 사람이 누워 있으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틀에 의해 해석하면 (14b)는 ‘한국동요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 사람이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IV. 마무리

이 연구는 ‘죽음’을 나타내는 금기어 표현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금기어, 완곡어의 개념과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의 은유, 환유 및 틀과 해석에 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 관련 금기어를 대신하는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 관련 금기어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표현하기 위해 완곡어를 사용하는데 은유나 환유의 기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죽음’은 ‘삶’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동하거나 여행에 비유한다. 또한 ‘잠’에 비유하거나 신체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것을 통해 ‘죽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둘째, ‘죽음’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지언어학적인 ‘틀’에 의해 ‘긍정’과 ‘부정’의 관점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으며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죽음’을 나타낼 때 ‘출발점’, ‘경로’, ‘도착점’ 중 어느 하나를 부각시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달리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광해,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1993.
- 김동환 율김, 『인지언어학 옥스퍼드 핸드북』, 로고스라이프, 2011
- 김미형,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2000, pp.27-63.
- 김억조, 「환유에 기초한 국어 차원형용사의 중화에 대한 해석」, 『언어과학연구』 60, 언어과학회, 2012, pp.67-86.
- 김종수,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독어교육』 20, 2000, pp.251-271.
- 김홍석, 「국어 어휘 범주의 완곡어 고찰」, 『한어문교육』 1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8, pp.20-37.
- 양태영 · 이정화, 「시사만화의 개념적 환유 · 은유 분석」,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2006, pp.43-69.
- 유창돈, 『어휘사연구』, 삼우사, 1971.
- 윤가현, 「노년기에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의 이해」, 『한국노년학연구』 25, 한국노년학연구회, 2016, pp.131-151.
- 이수련,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성 연구」, 『한글』 271, 한글학회, 2006, pp.107-132.
- 임지룡, 「환유 표현의 의미특성」, 『인문논총』 5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6, pp.265-299.
- _____,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 의미학회, 2006, pp.29-60.
- _____,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 _____, 「비유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한글』 306, 한글학회, 2014, pp.75-100.
- _____, 『한국어 의미특성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2017.
- _____, 『한국어의미론』, 탑출판사, 2018.
- 임지룡 · 김동환 율김, 『언어 · 마음 · 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역락, 2010.
- _____, 『비유언어: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15.
- 임지룡 외,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2015.
- 조향숙, 「금기어와 한국인의 감성」, 『인간 · 환경 · 미래』 10, 2013, pp.97-118.
- 채춘옥, 「완곡 표현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재고찰」, 『서강인문논총』 4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p.385-423.

- 채춘옥,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죽음에 관한 완곡어의 대조 분석』, 『사회언어학』 22,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 pp.255-279.
- , 『인지적 관점에서 본 완곡 표현의 생성기제』, 『서강인문논총』 4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pp.379-417.
- 허재영,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 요인』, 『사회언어학』 9, 한국사회언어학회, 2001, pp.193-217.
- Barcelona, A., “Introduction: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In A. Barcelon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0, pp1-28.
- Evans, V. & M. Green., *Cognitive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임지룡 · 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 Lakoff, G.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2003.(노양진 · 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 Lakoff, G. and M.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Sullivan, K., *Frames and Constructions in Metaphoric Language*, Amsterdam/Philadelphia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3.
- Ungerer, F & H-J. Schmid.,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1996/2006.(임지룡 · 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1998/2010.)

Abstract

Cognitive Linguistic Construal of Euphemisms of ‘Death’

Kim, Eok-jo

This study discussed the euphemisms used in place of taboo words representing ‘death’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Chapter 2 investigated the concepts of taboo word, euphemism, metaphor, metonymy, frame, and construal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in the form of theoretical backgrounds. Chapter 3 discussed the euphemisms used in place of taboo words related to ‘death’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based on the contents of Chapter 2. The discus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a linguistic community avoids the taboo words related to ‘death’ in their daily lives and routinely uses the mechanism of metaphor or metonymy while using euphemisms replacing the taboo words. ‘Death’ is understood in the same line as ‘life’ and compared with the movement or travel from this life to the next world. In addition, ‘death’ is expressed in terms of comparison with ‘sleep’ or cessation of some functions of the body.

Second,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xpressing ‘death’, it could be perceived as affirmation and negation by a cognitive linguistic frame, and could be constructed as a special way. Representation of ‘death’ is expressed by bringing into relief one of the ‘starting point’, ‘path’, and ‘destination,’ and it was noted that the method of expression differed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which one would express.

Key Word: Taboo word, Euphemism, Metaphor, Metonymy, Frame, Construal, Death

김억조

소속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ukjo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1월 25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